

# 박지원 “개헌 대비 무소속 받아들이 것”

### “文대통령 촛불 혁명 완결 위해 개헌 추진”

### “여야 모두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 할 것”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0일 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총선 결과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개헌을 대비해야 하기에 무소속 당선인을 받아들이 것으로 접했다.

또 여야 비례정당 모두 교섭단체를 형성하러라 내다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꿈을 쓴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협치’를 당부했다.

◇ 21대 국회, 문 대통령과 여권의 개헌 기회...여야 모두 개헌 대비, 무소속 받아들이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

에서 진행자가 “홍준표, 김태호 무소속 당선인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묻자 “미래통합당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복당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완결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리라고 보고 개헌을 해야 된다”며 그렇게 보는 이유로 “지금 이 의석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아러한 때에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될 미래통합당으로서 홍준표, 김태호 다 받는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103석)이 반대할 경우 개헌이 힘든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미래

통합당과 대화를 하면 개헌은 될 것이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협상력을 발휘하면 개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여야 비례정당 교섭단체 만들 것이지만 거대 여당이 그런 꿈을 펼쳐서야

박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권 확보(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뒀)를 위해 여야 비례 위성정당 모두 교섭단체로 등장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아마 만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는 “공수처장 문제로 교섭단체를 꺾고 채워서만 된다는 것은 꿈수다”며 “공수처장은 야당과 협치를 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코로나 극복도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그렇게 항기롭게 끝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개혁입법과 개헌을 위해서 야당

과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성 교섭단체까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 보수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미래한국당 움직임과 관계없이 여권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선 곤란하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야당류 2명의 추천위원은 교섭단체에 돌아가는데 21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이 2명 모두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17석),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19석)이 무소속 영입 혹은 다른당과 합당 등을 통해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교섭단체가 된다. 이 경우 의석수가 많은 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1명을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통합당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호 기자

## “IQ 세자리 되니까...” 구설수 이병훈 “조심하겠다” 사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활발한 논의를 주문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 등 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과했다.

이 당선인은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광주시와 정책간담회에서 말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현안 30건을 말했다”며 “당선자가 바쁘고 방송사 인터뷰 약속이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현안 사업은 문서로 하지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IQ 이야기를 한 게 실수였고 취지는 다르다”며 “이 자리(국회의원 당선)에 오기까지 8년 6개월이 걸렸다.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7일 광주형 일자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광주시와 광주지역 당선인간 정책간담회에서 ‘바쁘니까 짧게 하자’는 식의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총선 당선인들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 간부들은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자는 “제가 3시에 방송 될 약속이 있어가지고 건의 드리는데, 이거 다 읽어봤자(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다 집에 가서 보면 된다” 아이큐 3자리 이상이니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해달라”고 말해 ‘불성실 태도’ 논란을 빚었다.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 해결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이 당선인의 ‘IQ 3자리는 되니까 집에서 자료 보고 빨리 끝내자’는 말은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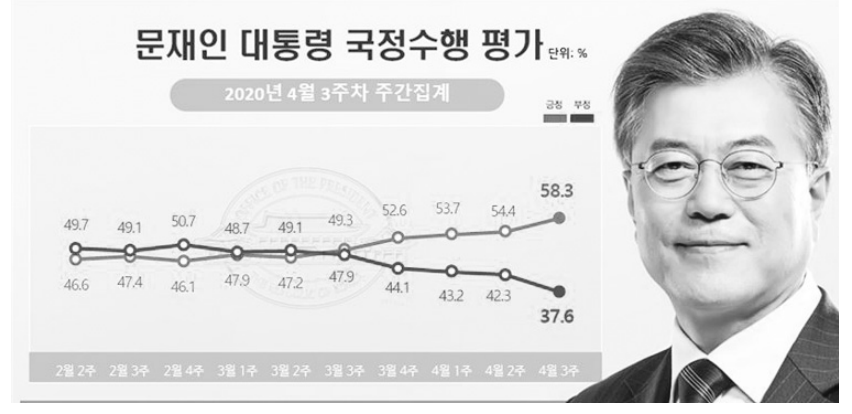
만함’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자치21은 19일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지고 제대로 일하며 실력으로 보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선이 되자마자 오만한 승리자 행보를 하는 이병훈 당선자는 낮은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행시·관료 출신임을 늘 자랑스럽게 얘기한 이 당선자는 총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이었다가, 이제 조선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달라진 선출직 공직자”라며 “정작 본인도 조선이면서, 동료 당선인들이 광주시와 공감대를 나누는 첫 인사말이 이어지는 중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빨리 끝내자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당선자가 8명 당선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데서 비롯한 장유유서(長幼有序)적 하대(下待), 행시·관료 출신의 고위 공직 경험자라는 점 등에서 동료 조선 당선자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오만한 승리자 의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8.3%

### 2018년 10월 이후 ‘최대치’

4주 연속 광주·전라-진보층-민주당-3040 세대 높은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58.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까 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8.3%로 조사됐다. 지난주보다 3.9%p 올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7%p 내린 37.6%, 모르거나 무응답은 4.1%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2018년 10월 4주차 조사(58.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018년 11월 2주차 조사(39.4%) 이후 40%를 하회했다. 또 지난 2019년 7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다. 특히 긍정·부정평가 차이는 20.7%p로 2018년 10월 4주차 조사(긍정 58.7%·부정 35.6%) 23.1%p 차이 이후 가장 큰 간격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7.1%,

중도층 55.5%, 보수층 22.9% 순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은 73.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3.5%, 정의당 77.6%, 민생당 40.3%, 새대별로는 40대 69.7%, 30대 64.8%, 50대 59.3%, 18~29세 52.7%, 60대 이상 49.4%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세대가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84.1%, 서울 60.5%, 경기·인천 59.9%, 제주 52.9%, 모르거나 무응답은 52.2%, 부산·경남·울산 51.8%, 강원 48.4%, 대구·경북 43.4%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8개 권역 중 유일하게 부정평가(54.6%)가 50%를 넘었다.

세대별로는 40대 69.7%, 30대 64.8%, 50대 59.3%, 18~29세 52.7%, 60대 이상 49.4%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세대가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문정인 특보 “6월 국회 개원 전 北 연락 올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이 되면서 6월 국회가 개원하기 전 북쪽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5월 첫주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고 생활방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남북한 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이 화답할 것”이며 “북이 우리 남북 정치적 변화에 그렇게 냉담할 수 없다보니 5월 초에서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북에서 뭔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긍정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